월간 산업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2023년 5월 11일 제30호
연 구 위 원 안 혜 영
연 구 위 원 김 문 태
연 구 위 원 오 유 진
연 구 원 김 종 현

HIF 월간 산업이슈 (5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화학제품 업황 회복 지연과 재무안정성 악화로 2023년 한계기업 증가 전망

- 2022년 업황 악화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축소로 기업의 운전자본과 투자 등을 위한 차입금이 확대된 가운데 ,금리 급등으로 이자비용 부담도 가중되어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 증가
- 특히 화장품, 석유화학은 단기 업황 악화로 2022년 한계기업 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취약기업 비중 증가, 고금리 지속으로 2023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모니터링 필요

자동차 실적 개선으로 적자기업은 줄어들었으나, 한계기업 비중은 유지

- 2022년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적자기업은 축소되었으나, 한계기업 비중은 전동화 전환 충격 여파로 15% 내외 수준이 유지되는 중
-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의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나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을 서두르면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조선 한계기업 리스크, 대형 조선사는 완화되나 중소형 조선사는 유의

- 2022년 국내 조선업은 차입금의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를 비롯하여 중소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산업 전반적으로 한계기업 증가
- 대형 조선사는 '23년부터 건조량 증가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계기업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으나, 중소 업체의 실적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만성 한계기업에 유의할 필요

유통 수익성 저하 및 차입금 증가로 한계기업 증가

- 소매유통업 한계기업 비중은 영업이익 감소와 차입금의존도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이자보상비율 악화를 야기하며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 업태별로 살펴보면 이커머스와 면세점은 각각 경쟁심화와 입출국객 감소에 따른 영업적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중하위원 업체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차입금의존도가 한계기업을 유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C13. 섬유	섬유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비철금속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산업 이슈

화학제품 : 업황 회복 지연과 재무안정성 악화로 2023년 한계기업 증가 전망
자동차 : 실적 개선으로 적자기업은 줄어들었으나, 한계기업 비중은 유지
조선 : 한계기업 리스크, 대형 조선사는 완화되나 중소형 조선사는 유의
유통 : 수익성 저하 및 차입금 증가로 한계기업 증가

C20. 화학제품: 업황 회복 지연과 재무안정성 악화로 2023년 한계기업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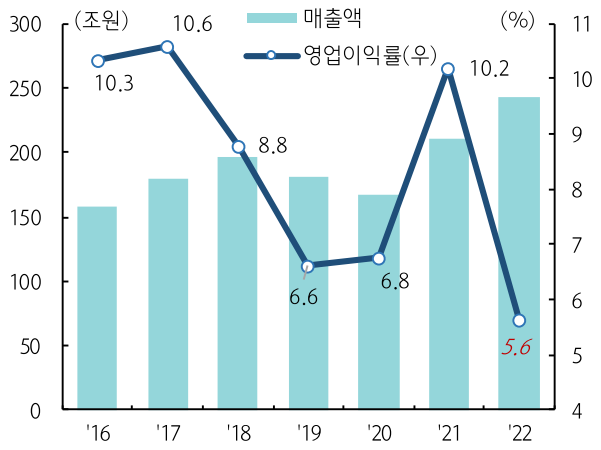
연구위원 안혜영 mith5@hanafn.com

※ **Summary** : 2022년 하반기 업황 악화로 화학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차입금 확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화학기업들의 재무부담이 확대. 이에 따라 2022년 화학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비 소폭 증가한 8.3%에 달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화장품과 석유화학 기업이 크게 증가.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대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한계기업 증가 속도는 대기업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남. 특히 2022년 화학 업종 내 취약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023년에도 석유화학 및 화장품 업종의 업황 개선이 어렵고 고금리 지속으로 한계기업 비중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

■ 2022년 하반기 화학업종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차입금 의존도 및 이자비용 부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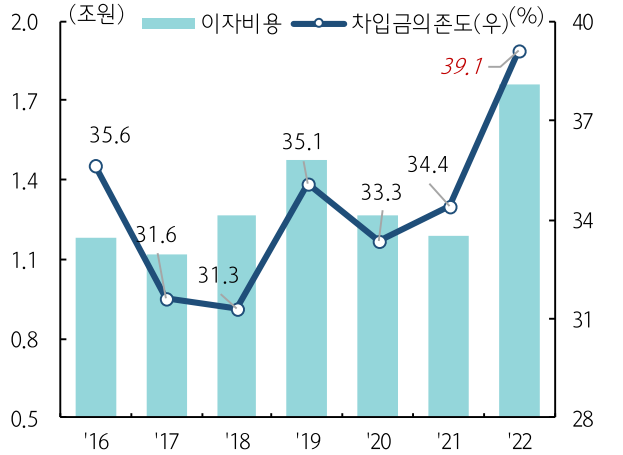
- 화학제품 제조업은 코로나19 관련 수요 확대와 경쟁국 생산 시설 차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2021년~2022년 상반기까지 판매 증가 및 수익성이 상승하며 경기 호황이 지속
- 그러나 2022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부담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합산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
  - 출하지수(2020=100): 106('21.1H) → 107('21.2H) → 103('22.1H) → 90.0('22.2H)
  - 화학제품 합산영업이익률 : 6.6%('19) → 6.8%('20) → 10.8%('21) → 5.6%('22)
- 실적이 급락한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운전자본 및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확대가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합산 차입금 의존도는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차입금 의존도: 35.1%('19) → 33.3%('20) → 34.4%('21) → 39.1%('22)

그림1 | 화학제품 기업 실적 추이



주 : C201~C205 내 외감 이상 기업 합산
자료 : Kis-Valuesum(

그림2 | 화학제품 기업의 합산 이자비용 및 차입금 의존도



주: C201~C205 내 외감 이상 기업 합산
자료 : Kis-Value

- 2022년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은 줄어든 반면 차입금 확대 및 금리 급등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화학기업들의 재무부담 가중
  - 화학기업 합산 이자비용 : 1.5조원('19) → 1.3조원('20) → 1.2조원('21) → 1.8조원('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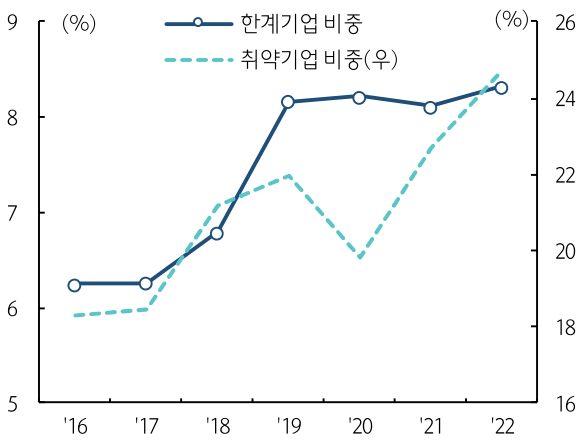
■ 2022년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화장품, 석유화학이 전년비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 두드러짐

- 2022년 화학 업종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외감이상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이하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8.3%로(한계기업 수 87개)로 전년비 0.2%p 상승
- 세부업종별로는 2022년 화장품/세제 부문의 한계기업 비중이 13.4%로(전년비 1.6%p 상승)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화학(기초화학, 합성수지)의 한계기업 비중도 전년비 상승
  - 화장품 업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재무건전성이 낮은 편
- 2022년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8.8%로 대기업(7.1%)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대기업은 빠르게 상승
  - 한계기업 비중 :(대기업) 5.1%('19) → 7.3%('20) → 6.8%('21) → 7.1%('22)
    (중소기업) 9.2%('19) → 8.5%('20) → 8.6%('21) → 8.8%('22)

■ 최근 취약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2023년 화학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 상승 우려

- 2022년 화학업종 내 이자보상배율 1이하인 취약기업 비중은 10년 내 가장 높은 24.8%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업황 부진과 고금리 지속이 예상되어 2023년 한계기업 전이가 우려
- 특히 최근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단기 업황 회복이 제한적인 석유화학(기초화학/합성수지)과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그림3 | 화학제품 제조업의 한계기업 및 취약기업 비중



자료 : Kis-Value

표1 | '22년 화학제품 세분류 및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 및 변화

구분		기업수(개)	한계기업(개)	한계기업 비중(%)	전년비 변화(%p)
산업 세분류	기초화학	236	15	6.4	0.7
	합성수지	181	15	8.3	0.5
	도료	65	7	10.8	0
	화장품/세제	254	34	13.4	1.6
	화섬	27	3	11.1	0
	기타 물질	283	13	4.6	-1.5
기업 규모	대기업	269	19	7.1	0.3
	중소기업	777	68	8.8	0.2

자료 : Kis-Value

C30. 자동차 부품 : 실적 개선으로 적자기업은 줄어들었으나 한계기업 비중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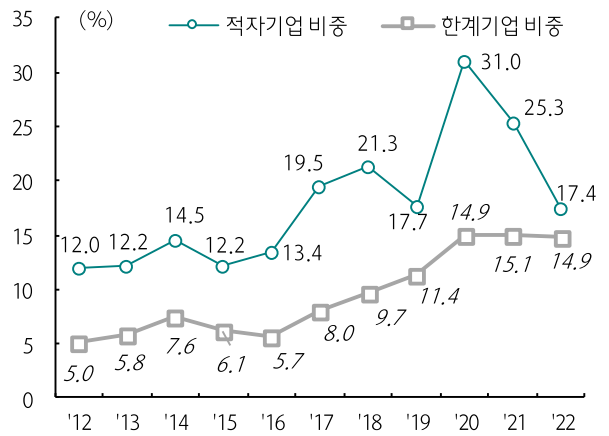
연구위원 오유진 yujin.oh@hanafn.com

※ **Summary :** 2022년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적자기업은 줄어든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유지됨. 자동차 부품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대 후반 전방 완성차 업계의 성장 둔화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전동화 전환이 겹치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 부품별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 전동화 전환 충격이 큰 엔진용 부품과 동력전달장치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 대기업의 한계기업 편입도 확대. 부품업 전체적으로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이 감소하며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가 전동화 전환을 서두르면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2년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적자기업은 축소되었으나 한계기업은 변화없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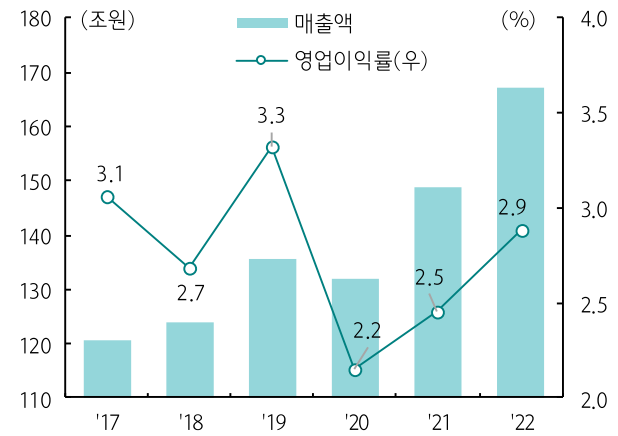
- '22년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전년보다 8.5% 증가하였고, 고부가 차량 위주로 판매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익성도 개선
  - '22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167조원을 기록했으며, 합산 영업이익률은 0.4%p 늘어난 2.9%로 완만하게 회복
- 전방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22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부품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20년 31%까지 치솟았던 적자기업 비중은 '22년 17.4%로 축소
- 다만,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11.4%에서 2020년 14.9%로 상승한 뒤 2022년에도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
  - '10년대 후반 전방 완성차업계의 성장 둔화와 '20년 이후 전동화 전환이 겹치며 한계기업 증가

그림4 | 자동차 부품업의 영업 적자기업 및 한계기업 변화



주 1)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이며 2022년은 1246개사
2)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Kis-value

그림5 | 자동차 부품업 합산실적 동향



주 :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2022년 1246개사
자료 :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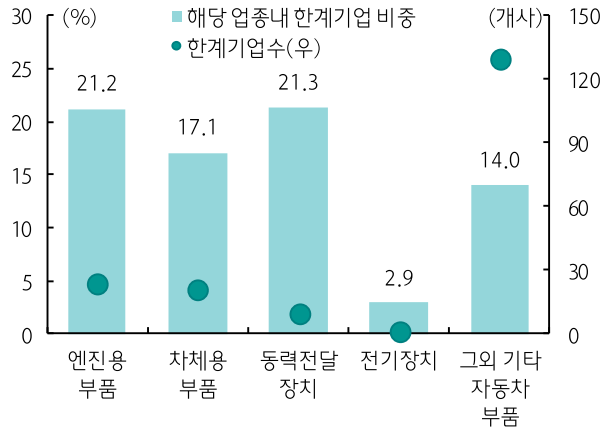
■ 전동화 전환 충격이 큰 동력전달장치와 엔진용 부품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편

- '22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부품기업은 총 186개사로 나타났으며, 이중 130개사(70%)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는 업종 구분상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수가 가장 많기 때문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부품기업의 74%가 동 업종 소속)
- 세부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 확대로 부품 수요가 위축되는 동력전달장치 부품과 엔진용 부품이 각각 21.3%, 21.2%를 차지하며 위험도 높은 편
  - 전기차는 모터 축에 감속기를 연결해 모터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있어 내연기관보다 동력전달 구조가 단순해지며, 엔진용 부품은 구동방식이 전환되므로 전기차에서 불필요
- 기업규모에 따라 한계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1개사, 중소기업 125개사로 나타났으며, 전체 부품 기업 중 대기업의 20.1%, 중소기업 13.2%가 한계기업으로 분류
- 한계기업수는 '21년 200개사에서 '22년 186개사로 축소되었는데, 이중 대기업은 소폭 늘어난(56→61) 반면, 중소기업은 줄어들면서(144→125) 대기업의 리스크가 확대 중

■ 현재 부품업의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나, 전동화 가속화에 따른 한계기업 확대 가능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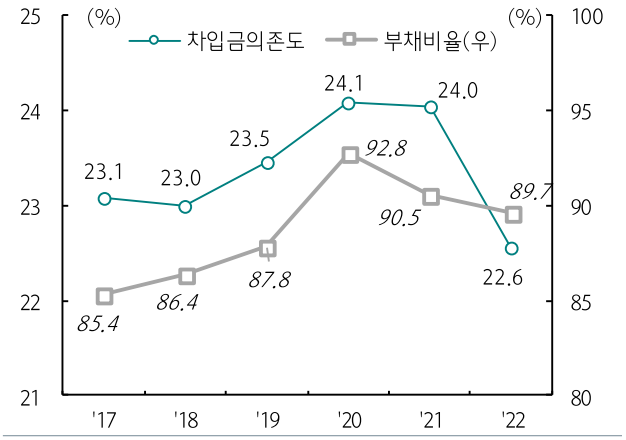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업의 합산 차입금 의존도는 '21년 24%에서 '22년 22.6%로 하락하였으며, '22년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0.8%p 하락한 89.7%를 기록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개선
- 다만,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어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현대차그룹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아 오토랜드 화성/광명 전용공장 착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151만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

그림6 | 자동차 부품 업종별 한계기업 분포



주 : 2022년 기준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7 | 자동차 부품업의 합산 재무 안정성



주 :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합산 대상으로 2022년 1246개사
자료 : Kis-value

C.31 조선 : 한계기업 리스크, 대형 조선사는 완화되나 중소형 조선사는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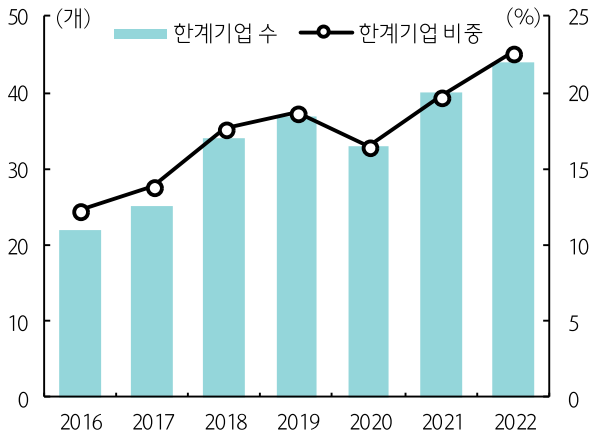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jh.kim_@hanafn.com

※ **Summary** : 2022년 국내 조선업은 차입금의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대형 조선사를 비롯하여 중소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산업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이 증가. 그러나 대형 조선사의 경우 선박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2023년 1분기 실적이 회복세를 기록하는 등 한계기업 우려는 다소 완화. 반면, 중소 조선사와 영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실적 회복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한계기업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내 양극화 우려. 특히,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만성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재무구조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

■ 2022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차입금의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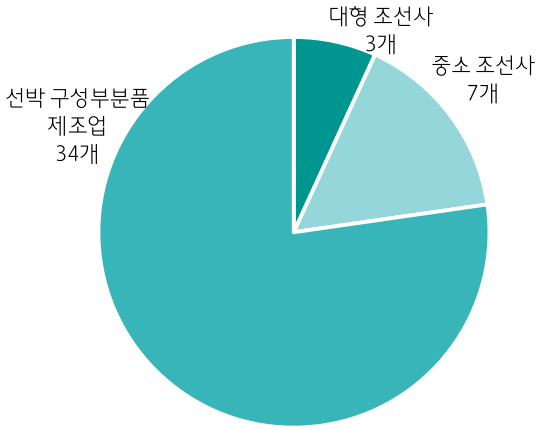
- '20년 이후로 국내 조선업은 차입금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계기업 비중은 증가
  - 차입금의존도(%) : 31.5('18) → 33.2('19) → 33.5('20) → 24.8('21) → 22.4('22)
  - 한계기업 비중(%) : 17.6('18) → 18.7('19) → 16.5('20) → 19.8('21) → 22.6('22)
- '22년 대형 조선사(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기존 저가 수주 선박 인도 및 후판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 등으로 실적 부진 지속
- 중소형 조선사 및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영세기업이 대다수로 경쟁 강도가 높은 반면, 경기변동 대응력은 낮아 수익성이 저조하여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상황
  - '22년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의 외감 이상 160개 기업 중 한계기업은 34개社

그림8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한계기업 추이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9 | 2022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한계기업 분류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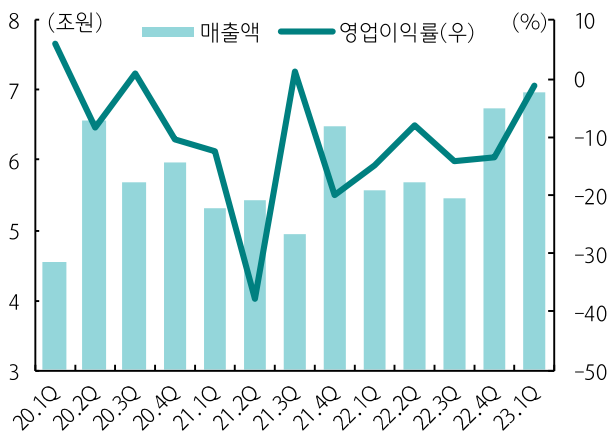
■ 대형 조선사는 2023년 1분기 실적 회복세를 기록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 완화

- 2023년 상반기부터 선박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대형 조선사의 '23년 1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기록하였고, '23년 전반으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조선 4사 합산 영업이익률(%) : −2.5('20)→−19.7('21)→−11.2('22)→−1.2('23.1Q)
- 건조량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수주 시점의 선가 강세 영향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전년대비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强달러 수혜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인도량(만 CGT) : 1,051 ('21) → 782 ('22) → 1,136 ('23) → 1,310 ('24) → 1,056 ('25)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P) : 129 ('20.Q1) → 129('21.Q1) → 155 ('22.Q1) → 168 ('23.5)
- 한편, 선박 건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은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로 인해 상승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원가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다소 낮은 상황

■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 업체는 실적 반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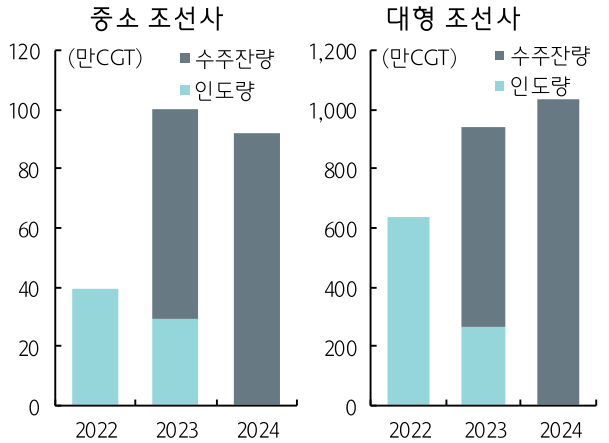
-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물량은 소형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이 중심이므로 대형 조선사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어, 실적 회복 폭은 대형 조선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상기업 전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조선 기자재 업체(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점유율 1% 미만인 영세기업이 대다수이며, 만성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조선업 실적 회복기 진입에도 취약한 재무구조에 유의할 필요

그림10 | 대형 조선4사 실적 추이



주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상장사 합산 기준
자료 : KIS-Value, 각사 I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1 | 국내 조선사 규모별 수주잔량



주 : 중소 조선사는 대선조선, 케이조선, 대한조선, HJ중공업 합산
대형 조선사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산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G. 유통 : 영업이익률 하락 및 차입금 증가로 한계기업 증가

연구위원 김문태 kmt@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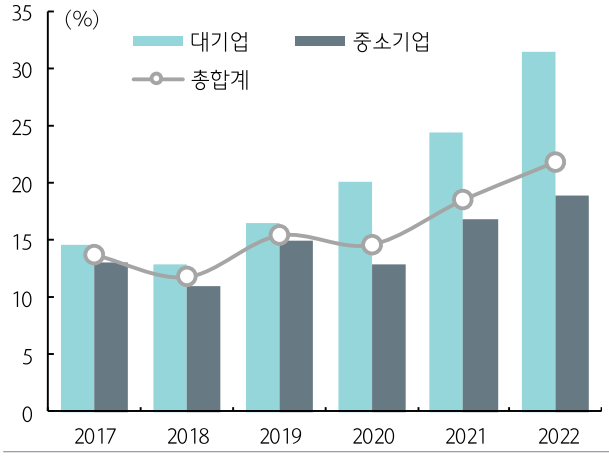
※ **Summary** : 소매유통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군의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 양호한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저하로 소매유통업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의존도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비율 악화. 업태별로는 경쟁이 심화된 이커머스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면세점이 영업 적자를 보이면서 이자보상비율이 악화되었으며, 편의점,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중하위권 업체들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차입금의존도가 한계기업 을 야기. 향후 성장성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에 따라 한계기업이 증가할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영업이익률 저하, 차입금의존도 상승 등으로 소매유통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

- 소매유통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14.7%에서 2022년 21.9%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군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 31.5%를 기록
  - 오프라인 대기업의 실적 저하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기업화 등으로 대기업군의 비중 증가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이하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
- 이자보상비율의 분자인 영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률)을 분해하여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성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 소매유통업 전반적으로 박리다매형 구조가 정착되면서 영업이익 축소
  - 매출액은 식료품 수요의 안정성, 홈코노미에 따른 생활용품 호조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7%(YoY)를 상회하며 비교적 양호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20년 이후 10%대로 하락

그림 | 소매유통업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



자료 : 통계청

그림 | 주요 소매유통 기업의 합산 재무 실적 추이

재무 비율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영업이익 (A*B)	30,700	25,182	21,510	14,001	15,672	20,743
매출액(A) 성장률(YoY)	1.3	12.6	9.9	7.2	13.5	9.0
매출액 영업이익률(B)	39.3	28.7	22.3	13.5	13.3	16.2
이자비용 (C*D)	4,319	4,251	8,203	13,068	13,559	15,158
차입금(C) 의존도	17.4	18.2	28.2	33.9	31.9	32.8
차입금 평균 금리(D)	2.8	2.7	3.6	3.8	3.5	3.7

주 : 소매유통업 상위 40개 기업 합산
자료 : 통계청

- 이자보상비율의 분모인 이자비용(차입금*금리)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시장 환경 대응 및 실적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차입금의존도 상승으로 증가
  - 주요 소매유통업체의 합산 기준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자산)는 2020년 이후 20%를 상회

■ 업태별로는 이커머스, 면세점의 영업적자 및 편의점 등의 높은 차입금의존도 등이 한계기업을 야기

- 컬리, 십일번가 등의 이커머스 업체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 하에서 우수한 성장성을 나타내었으나, 물류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 적자를 지속하면서 한계기업에 포함됨
- 해외입출객 감소, 따이공 의존도 심화에 따라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점 또한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은 차입금의존도도 50%를 상회
  - 초기 투자 등으로 인해 HDC신라, 현백면세점은 50~70%대의 높은 차입금의존도를 나타냄
-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1%~2% 수준의 저수익성과 경쟁력 강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높은 차입금의존도가 한계기업을 야기
  - 홈플러스의 경우, 업황 부진 및 MBK 인수 관련 차입금으로 차입금의존도 50%를 상회

■ 성장성 저하 및 금리 상승으로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 투자 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익성은 일부 회복될 수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내구재 중심의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매출액 성장이 제한될 전망
- 성장성 저하로 이익 창출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금리 반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더욱 상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그림 | 소매유통업 한계기업의 재무실적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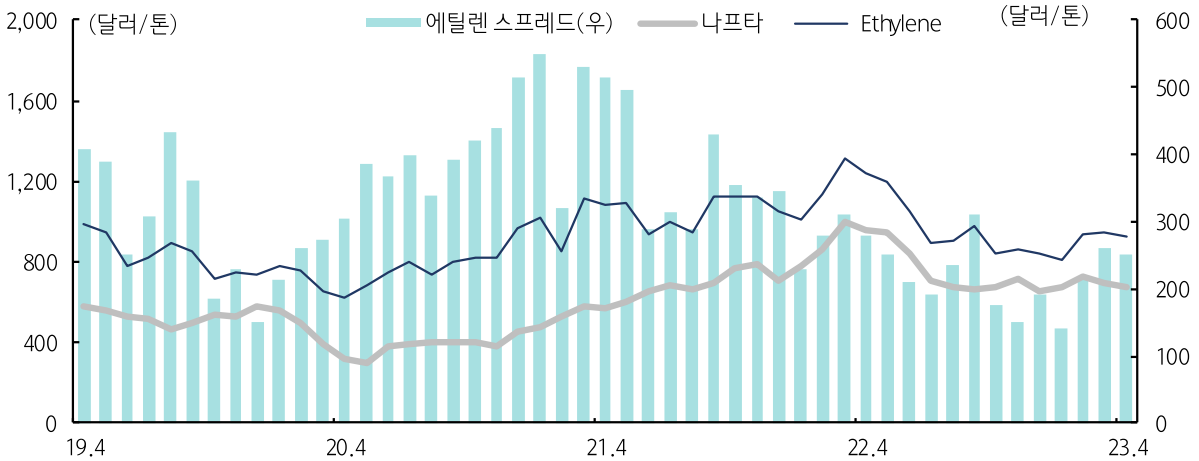
업태	기업명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률			차입금의존도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이커머스	쿠팡	-7.03	-8.61	-0.21	-3.9	-5.8	-0.1	33.0	36.6	31.8
	컬리	-10.27	-12.85	-11.55	-11.9	-13.7	-11.3	47.3	46.0	44.5
	SSG.com	-96.58	-261.12	-15.48	-3.6	-7.6	-6.9	1.1	0.8	9.9
	십일번가	-10.25	-83.14	-70.60	-1.8	-12.4	-19.2	2.5	2.0	7.5
면세점	HDC신라면세점	-2.17	-2.37	-0.92	-7.3	-9.0	-4.5	67.6	64.3	78.5
	현대백면세점	0.61	-4.03	-4.81	-10.5	-2.6	-2.9	53.9	59.0	56.2
편의점	코리아세븐	0.44	0.28	1.0	-0.2	0.0	0.2	42.4	44.5	41.1
	이마트24	-0.55	-0.19	0.19	-1.3	-0.2	0.3	55.2	56.0	56.4
	롯데CVS711	-0.44	0.09	0.40	0.2	-1.3	-2.4	30.0	32.6	36.6
마트, 슈퍼	홈플러스	-2.08	-0.29	0.54	2.2	1.3	-2.1	63.1	56.3	55.8
	메가마트	0.37	0.01	-8.11	-2.3	-2.9	-1.6	42.3	49.8	52.5
백화점	롯데쇼핑	-6.36	-7.95	-4.31	1.5	1.0	3.8	46.1	43.8	45.6
	이랜드리테일	-11.90	-5.12	-7.11	-3.0	-1.1	1.2	52.3	46.9	44.8
서점	교보문고	0.37	0.22	-0.35	0.1	0.0	-1.7	17.2	8.3	10.9

주 : 계절조정지수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주요 지표

석유화학(C20-2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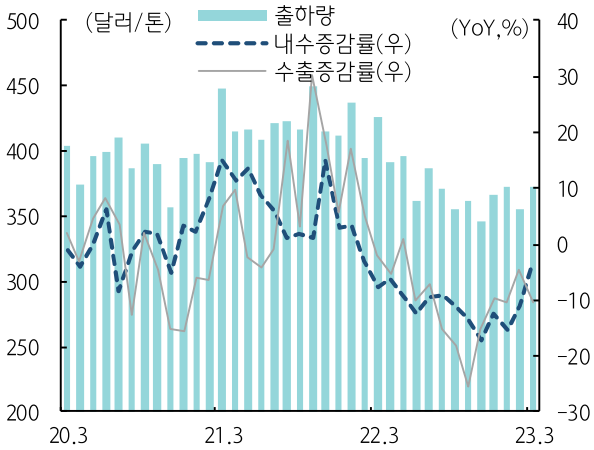
그림13 | 에틸렌 스프레드



자료: 페트로넷

가격 및 스프레드 (달러/톤)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전월비(%)	전년비(%)
나프타	671	715	674	669	725	690	677	▼ 1.9	▼ 29.5
에틸렌	862	864	845	810	940	950	928	▼ 2.3	▼ 25.2
스프레드	191	149	171	141	215	260	251	▼ 3.5	▼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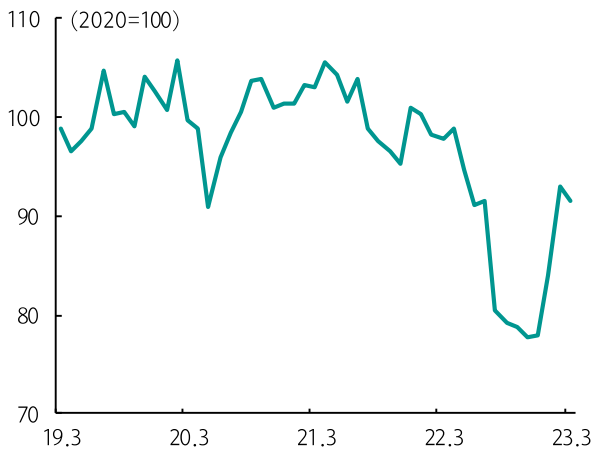
그림14 | 석유화학 제품 출하, 내수, 수출 추이



자료: 페트로넷

구분 (만톤)	23.1	23.2	23.3	전월비(%)	전년비(%)
출하량	372	355	372	▲ 4.8	▼ 7.5
내수량	171	185	186	▲ 0.5	▼ 3.6
수출량	176	181	186	▲ 2.8	▼ 10.1

그림15 | 국내 석유화학 가동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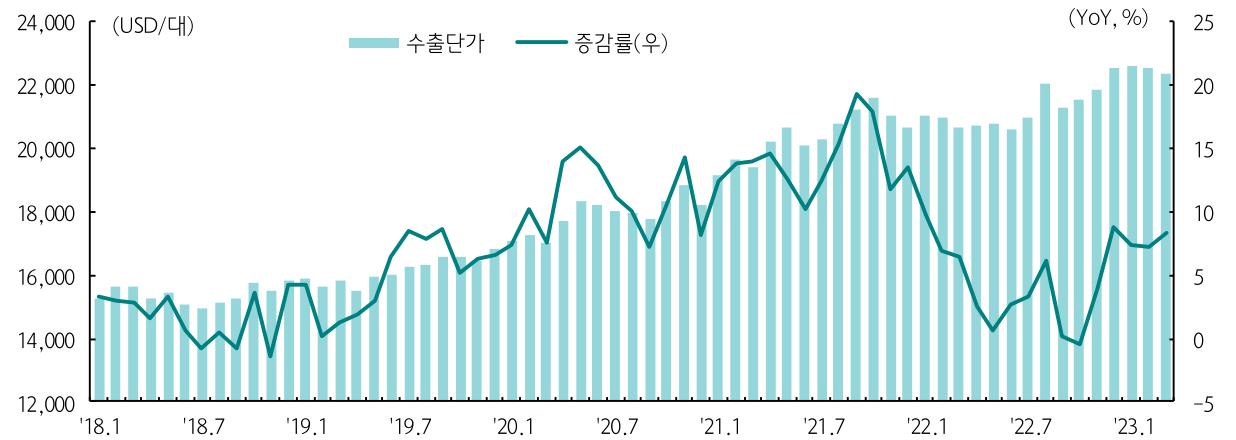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동률 지수	23.1	23.2	23.3	전월비(%)	전년비(%)
지수	84.1	93.1	91.6	▼ 1.6	▼ 6.4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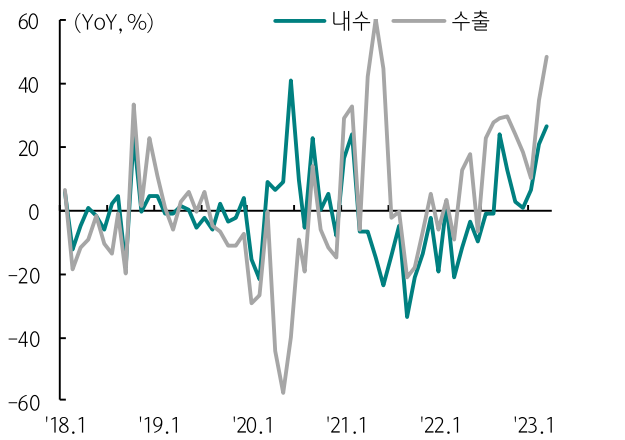
그림16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및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22.09	22.10	22.11	22.12	23.1	23.2	23.3	전월비(%)	전년비(%)
수출단가($/대)	21,262	21,522	21,881	22,525	22,584	22,515	22,354	▼0.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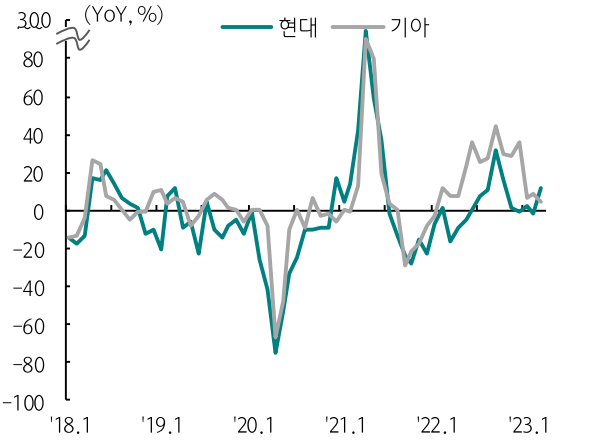
그림17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23.1	23.2	23.3	전월비 (%)	전년비 (%)
내수판매량(대)	100,776	125,621	141,388	▲12.6	▲26.7
수출량(대)	198,512	223,156	262,914	▲17.8	▲48.3

그림18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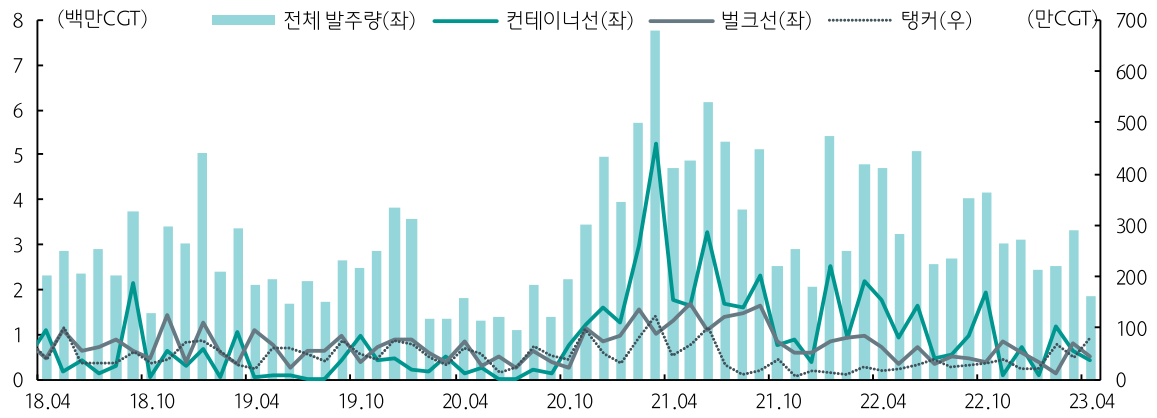


자료: KAMA

	23.1	23.2	23.3	전월비 (%)	전년비 (%)
현대차 해외생산량	169,065	174,622	204,395	▲17.0	▲11.4
기아 해외생산량	114,919	114,039	126,632	▲11.0	▲5.1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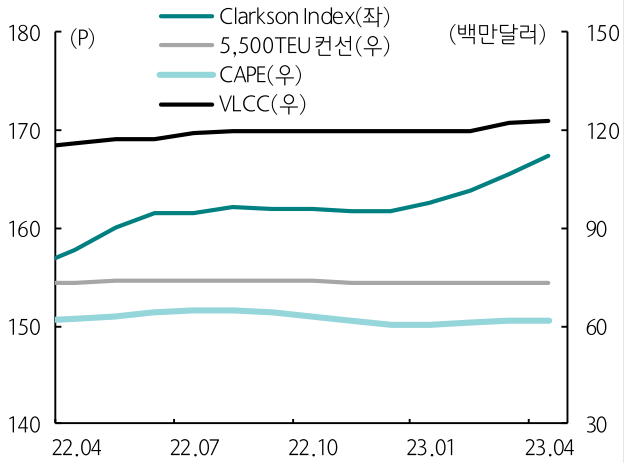
그림19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자료: Clarkson

선종별 발주량 (만 CGT)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전월비(%)	전년비(%)
전체 발주량	409	293	167	373	252	333	186	▼44.1	▼60.6
컨테이너	168	8	7	96	103	57	373	▼34.8	▲75.6
벌크	24	67	18	37	121	71	46	▼34.6	▼27.8
탱커	32	28	22	23	67	44	83	▲86.5	▲4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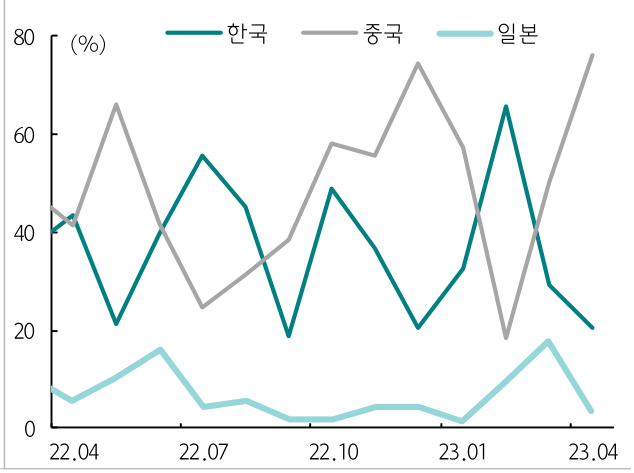
그림20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

선가지수 (P) 및 선가 (mil $)	23.2	23.3	23.4	전월비 (%)	전년비 (%)
Clarkson Index	163.9	165.5	167.3	▲1.1	▲6.0
CAPE	61.0	61.5	61.8	▲0.4	▼1.2
VLCC	120.0	122.0	123.0	▲0.8	▲6.0
5,500TEU 컨선	73.0	73.0	73.0	0.0	0.0

그림21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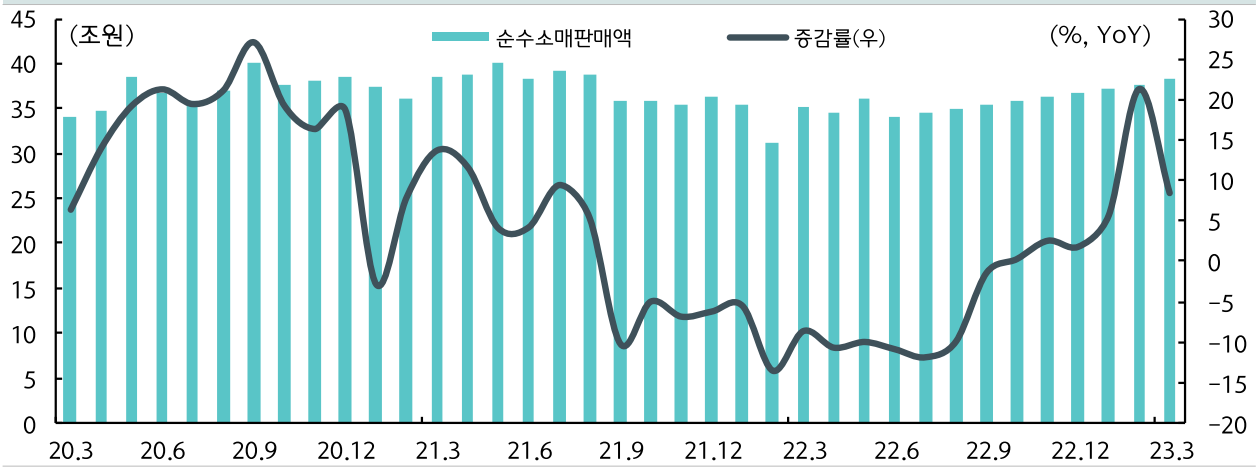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주 점유율 (%)	23.2	23.3	23.4	전월비 (P)	전년비 (P)
한국	65.6	29.2	20.3	▼8.9	▼23.4
중국	18.3	50.1	76.2	▲26.1	▲35.0
일본	9.2	17.6	3.4	▼14.2	▼2.0
합산	93.1	96.9	100.0	▲3.1	▲9.6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2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액 (조원)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전월비(%)	전년비(%)
순수소매	35.4	35.9	36.3	36.8	37.3	37.7	38.2	▲ 1.2	▲ 8.4
백화점	3.1	3.4	3.3	3.5	3.1	3.0	3.4	▲ 12.6	▲ 11.8
대형마트	3.2	2.8	2.7	3.1	3.6	2.5	2.9	▲ 17.5	▲ 3.7
전문소매	15.7	15.7	15.1	15.6	17.0	14.9	16.9	▲ 13.5	▲ 6.9

그림23 |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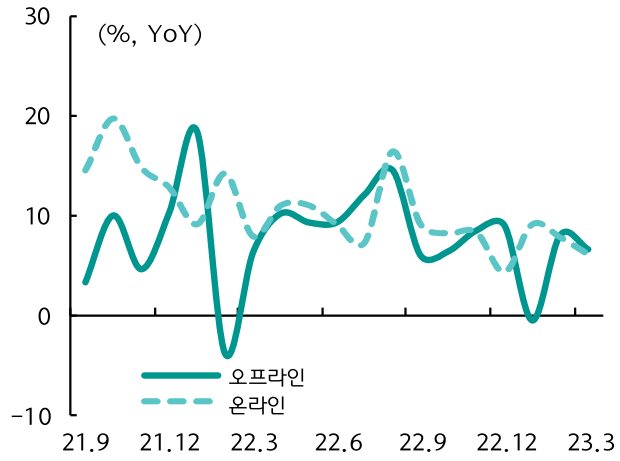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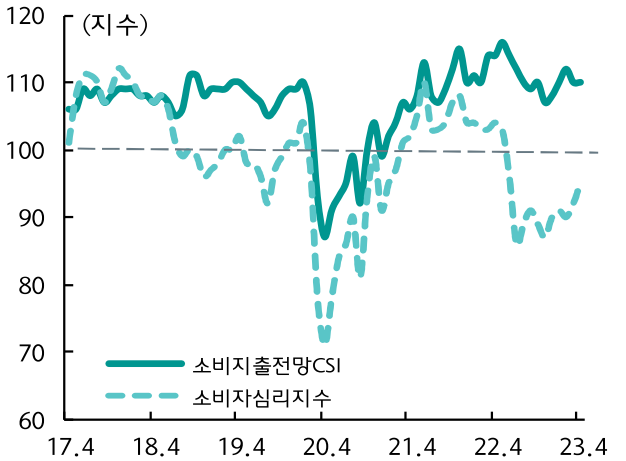


그림24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통계청

온·오프라인 매출 동향(%, YoY)	23.1	23.2	23.3	전월비 (%p)	전년비 (%p)
오프라인	-0.5	8.0	6.6	▼ 1.4	▲ 0.3
온라인	9.1	7.8	6.1	▼ 1.7	▼ 1.8

심리 지수 (지수)	23.2	23.3	23.4	전월비(P)	전년비(P)
소비지출전망CSI	112	110	110	▲ 0.0	▼ 4.0
소비자심리지수	90	92	95	▲ 3.0	▼ 9.0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83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